

사회



국향 가득한 광주시청 18일 오전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로비인 '시민홀'에 국회향 가득한 분재 4500여점이 놓이자 이를 보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잊고 있다. 24일까지 전시되는 이들 국화분재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와 국화연구회 회원들이 1년간 정성들여 기운 것이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전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달 중 자문위원 위촉… 내년 3월 제정 목표

전남도교육청이 이달 중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를 위촉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을 본격화 한다.

전남도교육청은 18일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학생 생활과 소통하는 학교문화 구현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5일 경기교육청이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서울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교육청이 목표대로 내년 3월께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를 제정하면,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가 된다.

도 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를 위촉하고 오는 11월에는 자문위 연찬회 개최, 자문위 토론회에 참여, 내년 초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교육과 인권 전문가, 사회활동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며 학생과 교직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학생과 교사의 인권 모두가 중요한 만큼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상생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고교생 학원교습 밤 10시 제한

시의회 교육위 조례개정안 통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 3월1일부터 광주지역 고등학생에 대한 학원교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고등학생의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내년 3월1일부터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현행 학원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새벽 5시~밤 10시까지, 고등학생은 새벽 5시~자정까지로 구분해 제한됐었다.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고등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조·중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원교습 시간대를 오후 10시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초·중·고 교육투자액

전국 최하위

전남은 전국 2위 규모

광주시의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경비 투자액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충남에 이어 전국 2위에 올랐다.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지자체(기초·광역) 교육경비 투자현황’ 분석결과 광주시는 전체예산 대비 지원비율이 0.19% (투자액 57억2300여만원)로 전국 최하위였다. 전남은 지원비율이 0.93%, 투자액 996억원으로 2위였다.

광주의 투자액을 전체 학생수(26만여명)로 나누면 학생 1인당 투자액은 2만2000원으로, 전국 1위인 충남(44만7900원) 보다 42만원 적었다. 전남(35만6000원)은 2위, 전북(2만9000여원)은 3위를 차지했다.

특히 광주는 재정사정이 열악한 타

자치 단체에 비해서도 교육 투자액이 크게 적어 그만큼 인색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광주시의 재정자립도(48.3%)보다 크게 낮은 충남(36.6%)은 투자액 1위였으며, 전남(19.4%)·전북(23.6%)·강원(28%)·경북(27.7%) 순이었다.

김춘진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투자여력에 따라 지역·학교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부 금법’과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치단체가 관할 지역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시설,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대해 지원한 예산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의과대학 복귀

2015학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될 듯

조선대학교 의학 교체계가 오는 2015학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이 폐지되고, 의과대학으로 복귀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18일 전체교수 회의를 갖고 교육 체계를 혁신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할지, 과거 의과대학 체제로 복귀할지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의대 복귀를 찬성하는 교수들은 64명으로 현행 의학전문대

학원 유지를 원하는 교수(27명)들보다 월등히 많았다.

조선대 한 교수는 “지역 우수 인재 확보 및 수도권 유출 방지를 위해 교육체제를 의과대학으로 전환하자는 데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조만간 투표 결과를 대학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본부는 이번이 없는 한 전체 교수의 결과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거점 국립대 교수회

‘법인화 전면 거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인화와 성과급적 연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립대 교수들의 공동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교수회 회장단은 18일 오전 11시 충남 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공동기

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법인화 추진 강행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와 국립대 총장에게 전하는 긴급제안문을 발표했다.

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법인화는 지역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방 국립대학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참여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1·2심 모두 무죄 처음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18일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여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 부장 이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시국선언 지지집회에 참석한 전공노 공무원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된 적은 있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대회에 참석해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은 궁극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이씨와 같은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가능직 공무원에 대해 별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고소득 약초재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모집공고**

임야에서 재배되고 있는 총 85종의 임산물에 대한 지원 및 보조사업 정책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임·농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주어짐에 따라 고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약초재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 조합원과 준 조합원의 모집을 공고합니다.

1. 재배품목: 산양삼(장뇌삼), 적하수오
2. 재배규모: 약 26ha(약 7만7천평)
3. 재배지역: 전라남도 일원 임야
4. 지원자격: 만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약초재배에 관심 있는 분으로 직접참여 가능한 분.
5. 거주제한: 광주, 전남 지역내에 거주하는 분
6. 출자금액: 정 조합원·3천만원(3천평) 준 조합원·5백만원 이상(3백평)

*임야 10만평 이상 소유하신 분, 또는 산삼씨나 산양삼씨 대량 보유자도 정 조합원 출자금으로 대체가능.

7. 지원일시: 2010년 10월 20일-10월 26일 17시 까지(7일)
8. 지원방법: 서류지침 직접방문
9. 접수장소: 전남 순천시 덕월동 1106번지
10. 전화: 061) 741-3389/ 010) 6886-4533
11. 이메일: dream0506@hanmail.net
12. 인터넷: www.simmemani.org/www.3309.or.kr
13. 서류제출: 2010년 10월 26일 까지(영농법인 설립용)
14. 구비서류: 인감2통/주민초본2통/주민증 사본1/도장
15. 주관: 한국전통심마니협회/(사)전통약용식물연구원

(가칭)○○산양삼 영농조합법인